

10명중 8명 아동기 폭력 · 학대 경험

가정폭력 가해집단 52.8% “아동 · 성인기 피해 有” 성인기 군대폭력 피해자 65.3%...직장폭력 25.7%

성인 10명 중 8명은 아동기 한 번이라도 폭력이나 학대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한 가운데 절반가량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력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차 인구포럼에서 류정희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성인 4008명(남성 1934명, 여성 2074명)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은 78.9%, 전혀 없었던 비율은 21.1%였다.

남성의 80.9%가 어렸을 때 부정적 경험을 했다고 답해 여성(77.1%)보다 그 비율이 3.8%포인트 높았으며 0점부터 점수를 매겼을 때 7점 이상 높은 부정적 경험이 있는 비율도 남성이 11.0%로 여성(5.3%)의 2배 수준이었다.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학교폭력, 정치적 폭력, 강도 및 조직폭력 등 집단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폭력 목격경험 49.7%, 가족 구성원들 간 폭력 목격경험 49.1%, 정서적 학대 경험 47.8%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기 신체적 학대 피해 경험률은 26.1%, 포래폭력의 경우 27.5%였다.

연령별로 43세 이상의 부정적 경험 비율이 43세 이하보다 높았는데 집단폭력(10.4%포인트), 정서방임(9.3%포인트), 정서학대(8.3%포인트), 신체적 학대(7.7%포인트)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로 구분해 보면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89.6%)와 임시 및 일용노동자(8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경험 비율이 높았다.

성인기에는 군대폭력 경험이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65.3%가 군대폭력 피해자였으며 48.4%는 가해자였다.

직장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은 25.7%였는데 이는 가해(13.1%) 경험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데이트폭력은 5.6%가 피해를 경험했고 5.1%는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피해율은 여성에서, 가해율은 남성에서 높았다고 류정희 센터장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있으면서 성인기에도 폭력을 겪은 응답자는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과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18.8%에 그쳤다.

부정적인 경험은 가정 내에서 대물림된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2153명 중 52.8%는 아동기

와 성인기 모두 피해를 경험했으며 36.7%는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1.5%는 성인기 피해경험)을 갖고 있

었다. 과거 생애과정을 통틀어 피해경험이 없는데도 가정폭력을 휘두른 경우는 9.1%에 불과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기 학대경험은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다시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대 및 폭력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결과는 그 폭과 깊이가 크고 깊다”며 “정책 개입에 있어 생애 초기발달과정에서 아동기 학대뿐만 아니라 삶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해 전반적인 아동기 발달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뉴스시스



재난대비 훈련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SR,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수서경찰서, 강남구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수영대회 AD카드 위조 20대 중국 여성 긴급출국정지

경찰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설 접근 권한과 신원을 확인하는 등록인증(AD)카드를 위조한 중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자국 여성 선수의 극성팬인 중국인은 취재용 AD카드를 위조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25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AD카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 중국인 A(25·여)씨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검찰 지휘를 거쳐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중국 자택에서 모사화관계량서비스 계정에 올려진 AD카드 사진을 보고 중국 국영 방송사 기자인 것처럼 AD카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용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중국 여자수영 국가대표 푸위안 후이 팬이다. 후이를 만나고 싶어 AD카드를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선수 출입구

주변에서 디지털 카메라·스마트폰으로 선수들을 촬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도한 촬영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위조한 AD카드를 보여준 점을 토대로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비행 사실을 감추려고 AD카드를 가방에 넣어왔다.

A씨는 입장권을 끊고 후이의 경기(50·100m 배영)를 1차로 관람했으며, 위조한 AD카드를 이용해 경기장에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가져온 만든 AD카드에 붙여진 대회 공식 스티커(GWANGJU 2019)는 영어가 아닌 한문으로 쓰여 있었다. 이 스티커는 A씨가 2011년 중국 상하이수영대회 때 발급받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께 자원봉사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0일간 A씨의 출국을 정지시키고, 이르면 26일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탈핵단체 “한빛 3·4호기 폐쇄” 촉구

광주·전남지역 환경시민단체 등은 25일 한빛원전 4호기 내 대형 공극 발견과 관련, 원자로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내에 서 길이 157cm, 폭 330cm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다. 격납건물 두께가 168cm인 점을 감안하면 ‘동굴 수준의 구멍’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120개의 크고작은 구멍이 발견됐으며 철관 두께 미달 부위가 수백여 개도 확인됐다. 구멍 수는 한빛 3호기까지 포함하면 190여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4호기 재정비를 멈추고 폐쇄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만취운전 중 차들이받고 식당돌진 40대 입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음식점을 잇따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로 정모(47)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시5분께 광주 남구 한 주차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상태로 SUV를 몰다가 A(44·여) 씨의 경차를 충돌하고 인근 식당에 돌진 있던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A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식당은 영업을 마친 뒤라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A 씨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정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돌진하는 차량을 미처 멈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술값 계산·욕설’ 갑질 경찰 간부 감찰

전북의 한 경찰서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감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업무시간 외에 강제적으로 술자리에 불러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에는 술값 계산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수차례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결국 해당 경찰서장을 찾아가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몇몇 직원들로부터 A경정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확인 중”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와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자랑’ 공소시효 두 달 남기고 달미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자랑하다 공소시효를 불과 60일가량 남기고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김씨의 형(50)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형이 몰던 1t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나 다쳤다며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5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마을회관 철거 공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에 나섰다. 자신의 부주의로 추락사고를 당해 전치 7주에 장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던 김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형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술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지인들에게 자랑스레 말하다가 범행 10년만에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사건외의 공소시효는 기존 7년이었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며 10년으로 늘면서 공소시효를 불과 60일가량 앞두고 김씨의 범행은 탄로나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초등학교 포르말린 유출 1200명 대피

25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포르말린이 유출돼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구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께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포르말린 약 300ml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1200여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특수구조대는 낮 12시47분께 유출된 용액을 모두 제거 처리했다.

사고는 과학실에서 용액을 옮겨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수로 용액 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말린은 살충제, 발충제, 소독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